

GCF, 태평양 도서국 직접접근 기구에 사업 자금 지원 개시

2017.10.23., 송도 - 녹색기후기금(GCF)이 태평양 지역 환경 프로그램(SPREP) 사무국과 태평양 도서국의 기후재난 대응력 향상을 위한 자금지원협약을 체결했다.

이번에 체결한 사업활동협약(FAA)으로 GCF는 SPREP에 지원하기로 한 23백만 달러 중 첫 납입금으로 296,730 달러의 자금지원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. 지원금은 바누아투 적응사업(26.6백만 달러)에 투자되는데, 바투아투는 2016년 세계위험보고서에서 자연재해 부분에서 가장 취약한 국가로 선정된 바 있다.

FAA는 인증기구가 GCF 승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문서이며, SPREP는 GCF 이행기구로 2015년 인증을 받았다. 태평양의 군소도서국(SIDS)에 영향을 주는 기후 변화 및 환경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.

SPREP는 태평양 도서국 직접접근 인증기구로서는 처음으로 FAA 체결을 했다.

. *원문출처 = http://www.greenclimate.fund/-/funds-flow-in-gc-s-first-direct-access-project-with-pacific-islands?inheritRedirect=true&redirect=%2Fwhat-we-do%2Fnewsroom%2Fnews-stories%3Fp_id%3D101_INSTANCE_tLw79zWwerZZ%26p_p_lifecycle%3D0%26p_p_state%3Dnormal%26p_p_mode%3Dview%26p_p_col_id%3Dcolumn-2%26p_p_col_count%3D1%26_101_INSTANCE_tLw79zWwerZZ_delta%3D30%26_101_INSTANCE_tLw79zWwerZZ_keywords%3D%26_101_INSTANCE_tLw79zWwerZZ_advancedSearch%3Dfalse%26_101_INSTANCE_tLw79zWwerZZ_andOperator%3Dtrue%26p_r_p_564233524_resetCur%3Dfalse%26_101_INSTANCE_tLw79zWwerZZ_cur%3D2